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규철 레 오 952-836-7117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지혜서 18:6-9

제2독서

히브레서
11:1-2,8-19

복음

루카 12:32-48

◎말씀

“준비하고 있어라”

남자라면 군대생활하면서 한번쯤 들어 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졸면 죽는다.” 사실 삼복더위의 한 가운데로 접어든 요즘 폭폭 찌는 더위에 웬지 기운이 떨어지고 눈꺼풀이 무거운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서는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도착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들을 손수 불러 식탁에 앉게 하고 그들 곁에서 시중을 드시겠다는 말씀은 그런 종들의 모습이 얼마나 주인을 기쁘게 하는지를 잘 엿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종들은 우리들이고, 주인은 주님이신 당신을 뜻하는데, 종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해 나갈 때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듯이, 신앙인들도 신앙에 충실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고 또 받을 칭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깨어 있는 것’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는 것’ 이란 잠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그분이 알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인데, 늘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애쓰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했던 당연한 일들을 두고 주인이 기뻐한 것은 주인의 자비 때문인데, 주인은 그런 종들을 종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자녀처럼 여기면서 식탁으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식탁으로 불러 주셨는데, 말하자면 우리들 당신 자비 안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주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도 충실한 종들처럼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루카 12:35)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 허리에 띠를 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몸가짐이고, 등불을 켜는 것은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럴 때 오시는 주님께서도 손수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그들 곁에서 시중을 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그러니 허리에 띠를 매듯 준비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고(1코린 6:20참조) 또 등불을 켜 주님을 기다리듯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으로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매일 매일 성찬례 안에서 성체성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구원의 식탁으로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분을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를 다짐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께서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8월9일(화)	연중 제19주간 화요일	저녁7시30분	주일헌금	\$ 1,162.00
			교무금	\$ 2,730.00
8월10일(수)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	오전7시30분	성물방	\$ 27.00
			사회복지	\$ 93.00
8월11일(목)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저녁7시30분	성소후원	\$ 93.00
8월12일(금)	연중 제19주간 금요일	저녁7시30분		
8월13일(토)	연중 제19주간 토요일	저녁7시30분	합 계	\$ 4,105.00
8월14일(일)	연중 제20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4명 성인: 155명
교무금 봉헌자	이윤상.이수동(9-12월)장현철.고원석(7-9월)민원기.임채봉.이승렬(7-8월)박병수(7월)김계숙. 이유빈.김규대.조기은.이주엽(8월)			

“무신론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

무신론(無神論)이란 신 존재를 부정하거나, 신앙을 거부하는 이론입니다. 소극적 무신론은 신이 없거나, 없어도 상관없다는 주장이고, 적극적 무신론은 신의 자리에 무언가를 대신해 신격화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중심이 되거나 과학을 절대시하며 신의 역할과 위치를 대신합니다. 무신론자들의 물음과 주장은 다양하지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느님이 계시는가? 만일 계시다면, 세상과 인간이 왜 이 모양인가?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하게 살아도 별문제 없는가?’ ‘둘째,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하느님이 계시다고 치자. 하지만, 다른 신들도 존재하고, 혹은 다른 신들의 힘이 더 세고 위대한 것이 아닌가?’ ‘셋째, 하느님도 계시고, 그리스도교 하느님이 최고라고 치자. 그런데, 그 하느님을 믿지 않아도, 매 주일 미사 가지 않아도 별 상관없는 것 아닌가?’

누군가 위 세 가지 질문을 들었을 때, 명확하게 답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자니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반대로 하느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기에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그 존재와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나 우정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존재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무신론의 물음과 주장에 반대하고, 하느님 존재하심을 확신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무신론은 온갖 형태의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시편 14,1; 10,4; 36,2, 지혜 13,5, 로마 1,18-20, 사도 14,14-16; 17,26-29 등) 성경에서는 하느님 존재를 확신하기에, 절대적 무신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 무신론은 18세기 후반에 신앙을 철학적,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를 통해 시작됩니다. 그 이후 무신론은 견고해졌고, 다양한 형태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무신론을 현대의 지극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치밀하게 검토할 문제로 다루며, ‘파문에서 대화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사목헌장」 19-22항 참조) 가톨릭교회는 무신론이 제기하는 문제가 결코 무신론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하느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경향에 대해 가톨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와 답변을 추구해야 할까요? ‘가장 그리스도교적인 것’을 찾고, 재발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를 통해 당신에 대해 많이 알려주셨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 2천 년 동안 교회가 믿어온 바를 성실하게 따르며 산다면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다워질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귀와 마음으로 잘 듣고, 가르침대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는 누군가의 말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인이 제 자리를 찾는다면, 과학을 통해 하느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려는 경향은 감소할 것입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김정필 라파엘, 윤태옥 안나, 원정은 카타리나 백정심 막달레나, 기은희 마리아, 김나미 로사 김옥륜 세실리아, 엄안드레아, 김숙자 수산나 안옥자 엘리사벳, 이규청 제노비아, 엄모니카 박모란 글라라, 이상일 마리아, 배미성 오틸리아 남필레 마리아, 고공자 벨라뎃다, 김화진 요안나 신용경 그레고리오, 김초지 마리아
- ◎기도 부탁하실 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안윤석	생	마이클 메이오 건강회복	최선옥 제노베파
연	클래런스 링고 영혼	최재진 모니카	생	남성 제15차 꾸르실료 본당 참가자들	본당 꾸르실리스따
연	박혜란 영혼	임실비아	생	(생일) 조영숙 도미키카 영육건강	아빌라데레사회
			생	(환갑) 최일해 다니엘 영육건강	최정신 데레사
생	김대건 안드레아, 김로사 김소피아 영육건강	이수동베드로. 벨라뎃다 가정	생	(생일.축일) 윤지현 알폰소 영육건강	윤비비안나
생	(생일) 김정애 헬레나 영육건강	김평옥 모니카	생	김도철 베드로 영육건강	이미자 미카엘라
생			생	이세상 모든 장애자들을 위하여	이나숙 데레사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양업 토마스 공동체 (리노공소) 미사

일시:7일(일) 성당에서 오후1시 출발
 미사집전: 리노교구장 다니엘 멀젠버그 주교
 참여단체:구역부, 공소부, 셋별 등
 리노공소 전교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2. 제26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13일(토) 성당에서 오전6시 출발
 (성령대회:오전8시반~오후8시)
 오전5시40분까지 성당 주차장 집결후, 개인별
 코비드테스트 결과 “음성” 확인자에 한하여
 오전6시에 출발합니다.
 장소: 샌프란시스코 성마이클 한인천주교회
 문의: 성령기도회장 김은영 폴리나

3.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일시:15일(월) 저녁7시30분. 성당
 의무대축일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본당 울뜨레아

일시:17일(수) 저녁8시 엘리사벳방
 개인별 성체조배:저녁7시30분-8시
 참석대상: 본당 꾸르실리스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서북미 한인 꼬미시움 회합

일시:21일(수)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참석대상: 서북미 6개 꾸리아 간부 (Zoom) 및
 우리 본당 각 뵤레시디움 4간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6. 서중부 남성 제15차 꾸르실료 참가자를 위한
 신부님의 파견 축복(아가페) 안내

일시:23일(화) 저녁미사후 엘리사벳방
 참가자: 양경민 안드레아, 안성수 예로니모
**본당의 모든 꾸르실리스따들은 파견 축복식에
 참석하여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라며,
 꾸르실료 교육기간(25일~28일) 동안 참가자들을
 위하여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7. 모임 및 활동

사회복지부:21일(일) 노라플레이스 음식봉사

<< 주일학교 >>

방학기간 중에도 어린이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 가정 봉성체 안내

일시:매월 마지막 목요일 신청:신부님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뵤으신 백성

전례봉사	연중 제19주일(8월7일)	연중 제20주일(8월14일)	연중 제21주일(8월21일)	연중 제22주일(8월28일)
미사해설	김선영 플로라	최금주 요안나	김은영 폴리나	김진영 마르타
복사	송돈희 요셉	최진호 다니엘	김병수 마리아	장현철 엘리야
헌금위원	천상의모후Pr.	셋별Pr.	천상의모후Pr.	셋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시오(909-573-5322) E-Mail: 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 (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 (바오로) 916-361-2020 (Bradshaw) 916-361-0433 (Elk Grove)</p>	<p>1.2.3 Auto Body 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 (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전주곰탕 & BBQ</p> <p>9345 La Rivera Dr. Sacramento, CA 95826 (구 아시아마켓) 임복순 (골롬바) 916-382-9699</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p> <p>배용환 (올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 (스테파노) 김옥기 (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p>	<p>서은미 부동산</p> <p>ONE REALTY ONE GROUP COMPLETE</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 (안나) 916-600-1936</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 #P) 최병엽 (바오로) 916-363-2345</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p> <p>헤어디자이너 정린 (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용자·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 (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p>	
<p>Allsafe Lock & Key2</p> <p>9336 #B La Riviera Dr. Sacramento, CA 95826 Sam Song 279-786-6186 allsafelocknkey2@gmail.com www.allsafelockandkey.com</p>	<p>장의사 W.F.Gormley & Sons Funeral Home</p> <p>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p> <p>고추장. 된장. 도토리 국수. 참기름. 청국장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 (916-591-0179)</p>	
<p>Angel Garden Care Home</p> <p>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 (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p>	<p>약사에게 물어보세요</p> <p>Aeyon Lee RPh (이애연 플로렌시아) 개인면담 (사전예약필요) 교중미사후 친교실 (격주) 916-276-1834 aeyon7511@gmail.com</p>	<p>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안내</p> <p>입금은행: Wells Fargo 은행주소: 9500 Micron Ave Suite 130 예금주: Pastor of St Jeong-Hae Elizabeth 계좌번호(Account#): 360 184 1897 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입니다.</p>	